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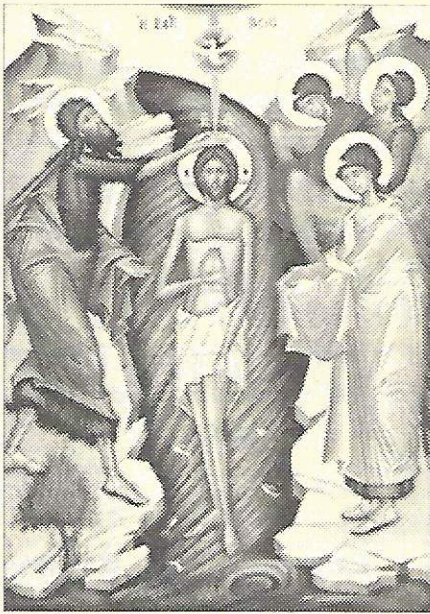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세례 축일

제35권 7호(나해) 2015년 1월11일

[묵상]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엎드려 신발끈을 풀자

죄 많은 인간들과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다. 당신 자신을 죄인의 모습으로까지 낮추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며 강물 속으로 잠기신 것이다. 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주 기뻐하시며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셨다.

그렇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물속이 아니라 죽음 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자녀가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참으로 사랑 받는 아들인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 공생활의 출발을 장엄하게 선포하신 것이다. 첫 번째로 취하신 행동이 바로 겸손하게 당신을 낮추시고 세례를 받는 것이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을 때 체험했던 은총의 사건이었다. 세례는 하느님의 아들딸로서의 새로운 출발이다. 우리는 분명히 세례성사를 통하여 주님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그분 마음에 드시는 딸이 된 것이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딸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만찬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들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 꾸리아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3: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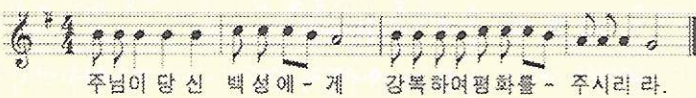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이필연 마르첼로 & 임규에 분다 & 정을진, 이종만 & 오옥자
	(생)이원형 프란치스코 & 이만석 미카엘 & 이만표 가브리엘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김옥순막달레나, 송종복 & 양옥분 켄마, 현시영 요셉, 이석진 가브리엘, 변혜경 올리안나,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이병찬, 최동섭 안드레아, 김기준 안젤라, 이용식 베드로, 이종희 요셉
	(생)장영진 안토니오, 서성용 베드로, 송두한요한, 박인경 베드로, 김성민 카타리나 & 김상규 니콜라오, 박인식 토마스 & 박리디아, 강인모 테오도시오, 민순섭 사비나 & 박씨니 마가렛, 김상근 바오로 & 김여희 마리안나, 조화숙 안젤라의 자녀들, 정현영 엘리사벳 & 정남형 알베르토, 석순영 아네스, 정린다 켄마 & 정엘리스 클라라 & 정애나 & 정에릭, 이문중 바오로 & 이난숙 마리아, 강상훈 라파엘 & 양희수 오티리아, 김병학 대건 안드레아 & 김숙희 유소사 세실리아, 김용 스테파노 & 김문주 엘리사벳, 주태청 라파엘 & 정명화 라파엘라, 김지훈대건안드레아, 오마우라수녀, 오창근베드로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42,1-4.6-7

화답송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제 2독서 사도행전 (Apostles)10,34-38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음 마르코(Mark) 9,7

영성제송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찬양하세	183	183
봉헌	417	268	255
성체	401	286	305
파견	394	246	235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쉼신

제3장

‘성령쇄신운동’의 빛과 그늘

1. ‘성령쇄신운동’의 빛

2) 다양한 은사를 통한 삶의 변화

그 열매는 첫째, 개인의 삶과 인간관계의 긍정적 변화다. 적지 않은 이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밝고 긍정적인 개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부부 갈등, 자녀 문제, 고부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직장에서 진정한 대인 관계의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교회 내에서의 단체 활동과 능동적인 봉사 활동이다. 성령쇄신운동을 통해 은사를 받은 이들 중에서 기도회 또는 기타 신심 모임 활동, 교회 내의 단체 활동, 소공동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친교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증가하였다. 셋째, 선교에 대한 용기와 지혜 그리고 교회 밖의 사회 복지 시설에서의 봉사 활동이다. 이렇게 성령의 다양한 은사로써 개인 삶의 긍정적인 변화와 선교 의지, 교회와 사회공동체를 위한 봉사와 투신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쇄신운동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에 기본이 되는 성경 읽기와 묵상, 미사 참례, 기도생활에 좀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아울러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개인 삶의 긍정적인 변화는 물론 ‘가족 간의 화목, 이웃과의 친교, 적극적인 선교 의지 그리고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에 참여’라는 결실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성령쇄신운동은 하느님 현존에 대한 확신을 심어 줌으로써 신앙 쇄신과 내적 치유가 이루어져,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제시하신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현하도록 많은 도움을 준다고 평가된다.

2. ‘성령쇄신운동’의 그늘

성령쇄신운동에는 그늘진 측면도 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와 개인의 욕망 때문에 생겨나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모습(갈라 5,17-21; 로마 7,7-25 참조)이다. 한국 가톨릭 성령 쇄신 봉사자협의회에서 발간한 여러 책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적하고 있다. 곧 성령 은사의 오해와 남용, 외적 은사에 대한 집착, 봉사자들의 자질 미흡, 전문 봉사자의 부족, 일부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의 일탈, 성령 쇄신운동에 대한 성직자들의 올바른 이해와 지원의 부족, 기존 가톨릭 신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일부 기도회의 광적인 분위기, 남성과 청년들의 참여 저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 가운데 ‘성령 은사의 오해와 남용, 봉사자들의 자질 미흡’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된다. 다른 문제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문제와 결부되어 일어나기 때문이다.

<◆계속>

새날은 새 마음과 함께 시작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고 가끔 되새겨보는 구절이 있습니다. '진정한 새해는 해가 바뀔 때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때 시작됩니다. 동트는 날이 새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로 보일 때 새날이 밝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새로워져서 다른 사람을 경쟁과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형제자매로 보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사랑 받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죄와 잘못으로 얼룩진 세상이지만, 하느님은 이런 세상마저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요한 3,16 참조)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복음)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죽기보다는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였고,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셨습니다.(제1독서) 또한 고통과 죽음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들을 '두루 찾아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제2독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생생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분의 사랑 받는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느님은 좋은 부모님이 그러하듯, 잘나고 성공한 자식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식도 품어주고 아껴주십니다. 그러니 자신이 못났다고 자책하거나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못생겼다, 능력 없다, 가난하다, 이혼했다, 직업이 없다, 병들었다, 늙었다고 업신여겨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서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너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

고 있다'는 보증을 받습니다. 동시에 '너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과제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 꺼려지는 이들, 내게 상처를 주어 미워하고 있는 이들도 그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어두운 세상과 못난 인간마저도 사랑하시어 당신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그런 세상과 인간을 감싸 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르코 1,11)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주님 세례 축일로 성탄 시기가 끝나고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축제는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일상은 새로움이 거의 없고 그렇고 그런 생활의 반복이라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이끌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낡은 세상에서도 거듭 새로운 마음을 지니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손 희송 신부 / 사목국장

싸움의 기술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상대가 두려워하는 무기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싸우러 나갈 때 사람들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무기를 먼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쩔 자신의 두려움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매번 싸움에서 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영 아네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자벳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남 1,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례 테레사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동 1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주님
세례축일**

오늘(1월11일)은 '주님 세례축일'입니다. '주님 세례축일'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공적으로 드러낸 사건을 기념하고자 제정 되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날입니다. 전례력으로는 주님 세례축일로 성탄시기가 끝나고, 다음 날부터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 주님 봉헌 축일 ...제대초 봉헌과 개인초 신청받습니다.

성탄 후 40일째 되는 날에 지내는 '주님 봉헌 축일' (2월2일)은 성모 마리아께서 정결례를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이날 전통적으로 1년 동안 전례와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성합니다.

- 초값 : 제대초 \$20, 개인초 \$15 (개당)
- 신청 : 1월 25일(주일) 까지 성물부 또는 사무실
- 축성할 때(봉헌 축일) 개인이 따로 구입한 초를 가져와서 축성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사시간: 2월2일(월)저녁7시30분(새벽미사없음)

◆ 요셉회 모임

- 18일(주일) 11시 미사후 강당
- 문의 :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치매”와 예방에 관한 건강세미나

치매에 대한 지식과 기술등 치매에 관련한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신자분들을 모시고 건강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서 유익한 정보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오늘 주일(11일)1시
- 장소 : 성전
- 강사 : Dr. 최재영 요안나, 신경과 전문의(현 USC강사)

◆ 주일학교 / 한국학교 휴강

- 18일(주일)은 마틴루터 킹 주니어 데이 연휴로 수업이 없습니다

◆ "오 마우라 수녀님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1월15일(수)은 성 베네딕투스의 영적 아들이며 베네딕도회의 설립자로 알려진 성 마우로 축일로, 본당 오향숙 마우라수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수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월11일(주일) * 토동1반 : 카레라이스 (\$3)
* 주일학교 : 스펀 무수비(12학년)
- 1월18일(주일) * 토서 1,3반 : 비빔밥 (\$3)
* 주일학교 : 수업 없음(마틴루터킹데이 연휴)

지난주 우리들의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김 옥 김기정 김상근 김선제 김양금 김옥찬 김원모 김정웅 김정희 김종렬 남명자 노순애 모은기 박씨니 박음전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변정선 석순영 성미선 송기철 안재만 엄혜은 오일순 우영희 윤희동 이귀분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이정미 장영우 전정일 정규숙 정병훈 정지숙 조소영 주용순 최태훈 한창주 한혁수 영희가보라 익명	김 옥 김기정 김선제 김원모 김정희 남명자 노순애 모은기 박씨니 박음전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변정선 석순영 성미선 안재만 우영희 윤희동 이귀분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장영우 정규숙 정지숙 조소영 주용순 최태훈 한혁수 영희가보라 익명
합계:\$4,180 2차헌금: \$ 1,023	합계: \$1,790 성물부수익금:\$1,305.50 감사헌금:\$1,400 (이재용, 한알렉스, 전정일)
주일미사 헌금: \$2,851 1월1일미사헌금: \$ 2,125	달력광고비: \$ 900 안나회 동전모으기: \$ 707.59

공지사항

◆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순 피정

- 일시 : 2월27일(금)~3월1일(주일)
- 장소 : 꽃동네
37885 HWY. 79. S. Temecula, CA 92592
- 참가비 : \$60 (1/18~2/8 등록시), 이후 \$85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핑백, 재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문의: 김낙기 바오로 주일학교 교장
☎(310)709-3343

◆ 주일학교 사순 피정학부모설명회

- 2월 8일 (주일) 오후1시 성전

◆ 백삼위 한국학교 2학기 등록을 받습니다.

- 1월 25일까지 20% 할인 혜택이며, 2월부터는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단, SAT반은 \$ 200.)
- 접수장소 : 백삼위 한국학교 교무실
- 접수일 : 1월 11일, 1월 25일 (학생 미사 후)

◆ 백삼위 한국학교 1 학기말 시험 성취도 평가 우수자 시상식

- 1월 11일 백삼위 한국학교 1학기말 시험을 통하여 성취도 평가 우수자를 시상합니다
- 시상식 : 1월 25일 학생 미사 중

“세 신자 환영합니다.”

☺ 서로 인사 합니다. ☺

남가주 소식

◆ 성 아그네스성당 연말 선물용 이나시오 커피판매

- 가격 : \$10, \$20, \$50
- 주문 : 카페방문, 전화, E메일
- 수익금은 쉼터조성, 나눔실천, 성당건립을 위해 사용됩니다.
- 문의 : 이나시오카페 ☎(323)731-4433

소공동체 1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김옥찬 수산나 991-4838 1 / 18(일) 오후1시 성당회의실
	2	김찬구 요한 701-6343	한창주 요아킴 530-7702 1/10(토) 오후 6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16(금) 오후7시30분 성당 2층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박동수 베드로 218-7340 1/10 (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김인성 스테파노 991-8558 1/10(토) 오후5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윤선희 로사 710-8416 1/17(토)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상용 임마누엘 625-3312 1 / 23(금)오후 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634-6923 1 / 9(금) 오전11시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이재용 안드레아 793-7733 1 / 10(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김병태 요셉 (424)232-8522 1/12(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	박진수 스테파노 /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1/10-1/11 팝스프링 온천
	3	1,2반과 같음	
P. V. 남정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이 리비나213-700-6983 1 / 16(금)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유지아 클라라 793-6157 1/ 9(금)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김 명 베드로 974-2211 1 / 17 (토) 오후4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1 / 13(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 단체모임 오후1시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요셉회 오후1시

**124위 시복특집< 17 > 한정흠 스타니스라오(1756-1801)?
김천애 안드레아(1760-1801)
최여겸 마티아(1763-1801)**

전라도 김제의 가난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한정흠 스타니스라오는 먼 친척 유항검 아우구스티노의 집에 머물며 그 집 자녀들의 스승이 되어주었습니다. 유항검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한 한정흠은 주문모 신부가 전주를 방문했을 때 성사를 받는 등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신자의 본분을 성실히 지켜갔습니다. 한정흠은 1801년 3월 유항검과 함께 체포되었는데 혹독한 형벌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유항검의 종이었던 김천애 안드레아는 양반임에도 천민을 형제처럼 대하며 허물없이 한테 어울려 하느님을 찬미하는 유항검에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신분 차별 없이 사람을 하늘같이 존중하는 천주교 교리에 감격하여 기꺼이 입교하였습니다.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뒤 김천애는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는 고결한 마음으로 신자의 본분을 정성껏 지켜 나갔습니다. 김천애는 1801년 3월 유항검의 맏아들 유중철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윤지충과 이존창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한 최여겸 마티아는 대단한 열성으로 신앙을 실천하며, 고향인 전라도 무장은 물론 인접한 영광, 홍덕, 함평에까지 천주교를 알리는 데 노력했습니다. 1801년 4월 최여겸은 한산에서 체포되어 일단 그곳에서 문초를 받고 감사의 명에 따라 무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판장은 즉시 그에게 형벌을 가하며 문초를 시작하였지만 곧 어떠한 형벌로도 그의 신앙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다시 전주 감영으로 이송했습니다. 계속되는 문초와 형벌에도 꺾이지 않고 신앙을 지키던 최여겸은 옥중에서 열심한 신자 한정흠과 김천애를 만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최여겸과 그의 동료들은 그 후 한양으로 압송되어 포도청과 형조에서 문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고 마침내 1801년 8월 21일 형조는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각각 고향으로 보내 처형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김천애가 남긴 최후의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주교는 큰 도리요 지극히 훌륭한 행위로, 여러 해 동안 깊이 믿어 이미 뗏속까지 사무쳐 있습니다. 제게 형벌과 죽음은 영예로운 일이니 어찌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범한 죄를 돌이켜보건대, 오직 빨리 죽기만을 원할 따름입니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 엮음

프라하와 몰다우강 [문화의 복음자리]

프라하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는 몰다우강, 그 위의 까렐 다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까렐 다리난간 위에 있는 모두 30개의 유명한 조각상들 때문이다. 조각상들은 바로크 양식의 화려하기 그지없는 모양새들이지만, 도무지 그 속에서 메시지를 찾을 수는 없다. 화려함을 자랑하는 조각상들은 그저 패션모델에 불과할 뿐이다. 관광객들이 까렐 다리에서 접할 수 있는 건 현재의 즐거움일 뿐, 미래와 약속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까렐 다리 아래로 몰다우 강이 흐르고 있다.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몰다우강’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다. 스메타나는 절망에 빠진 체코 국민의 가슴을 음악으로 흔들었다. 그것은 몰다우 강처럼 출렁이면서 저항의 기운을 솟게 하였으며, 독립의 기상으로 분출하였다. 화산처럼 분출하는 강-몰다우! 시벨리우스가 조국 핀란디아를 노래하며 잠자던 동포들을 일깨웠듯이, 고난에 지쳐 숨죽여 있던 체코국민들의 가슴에 스메타나는 조국의 몰다우 강을 노래하면서 잠자던 존재를 눈뜨게 하였다.

다시 체코가 소련(구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 무너지자 쿤텔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국민들의 가슴을 다시 불지른다. 잊지 않으리, 조국의 독립을 잊지 않으리, 무력과 물질에 무너지는 인간 존재의 가벼움을 잊지 않으리,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고양된 인간 존재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느니!

나의 교구, 나의 성당은 어떠한가. 나의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교구와 본당은 어떠한 의미이며 어떠한 이유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엄연한 나의 현실에서 말이다.

◆ 조옥중 신부 / 로사리오의 집

성경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교리상식]

☞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은 약 3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누가 그 책들을 썼는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성경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힘을 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저자들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 하느님 말씀을 기록하고 책으로 엮어 교회에 전해주었습니다.

◆ 예비신자공금증105가지 / 가톨릭출판사